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반도체 코리아' 4분기 D램 점유율 72%

원문보기

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75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품 조달이 활발했던 반면, 서버 고객들은 여전히 재고 조정 중이어서 D램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 반도체 귀하신 몸... 파운드리 증설 전쟁

원문보기

반도체 품귀현상이 완성차는 물론 IT(정보기술) 등 제조업 전반을 뒤흔들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의 증설 투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파운더리는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등 3개 공장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올해 14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의 '대·반·전' 정책, 미국 일으킬 경제 백신 될까

원문보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텃밭인 중산층을 공략해 대통령에 당선된 점을 반성, 이 지지 기반을 되찾아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경제 공약으로 ①확장적 재정 정책 ②다자주의 무역 ③환경-노동-인권 강조 ④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넷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책 노선이 같다.

▶ 미래 산업의 쌀 'AI 반도체'...M&A 붐빅 테크 격전 속 한국의 전략은

원문보기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스마트폰·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부상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2018년 70억 달러에서 2030년 1179억 달러로 늘어나 2018~2030년 연평균 26.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2년 12%, 2030년 31%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산업포럼' 스타트...첫 주제로 반도체 산업 진단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미래산업포럼' 1차 회의(반도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미래 산업포럼'은 글로벌 산업이슈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기업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도록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 모색...협업체 발족

원문보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및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공급·수요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업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DB하이텍,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 산업계와 한국자동차협회, 한국반도체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련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